[지구하] 아찔한 첫만남

띵동 -

주문이 울린 곳으로 가보니 방금 나의 코 끝을 자극했던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을 두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.

**주문하시겠어요?**

네!! 저희..

*쨍그랑!!*

…

….

항상 시끄러웠던 술집이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.  
근데, 왜 이렇게 밑이 축축하지...?

술냄새와 섞인 향을 맡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있었다.  
맥주 잔에 떨어지면서 내 바지에 엎어진 모양이다.

…. 죄송합니다!!!!!(화면흔들림)

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맡은 그 향과 땀 냄새가 조금 섞인 포니테일 머리를 한 다부진 체형의 여자가 안절부절한 상태로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.

아 어쩌면 좋아… 괜찮으세요?

**아, 네 뭐…**

아니, 사실 매우 찝찝한 상태지만 여분 옷을 챙겨왔다.

1. **갈아입을 옷이 있어서 괜찮아요.**
2. **흔히 있는 일이라 괜찮아요.**

그래도.. 다치진 않으셨나요?!!

아.. 진짜 어떡해.,.. 제가 빨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.

아니면 세탁비라도!!!(화면흔들림)

그녀는 취기가 조금 있는 지 매우 큰 목소리로 미안하다며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.  
하아,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데..

**일단 주변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자리에 돌아가봐요 진짜 괜찮으니까.**

그렇지만...

이 뒤로는 울먹거리는 그녀를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이 죄송하다며 데리고 자리로 돌아 갔고

술집에서는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금방 사람들 말소리로 공간을 채워갔다.  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후... 갑자기 알바하다가 이게 무슨일이람

**사장님 저 옷 갈아입고 나서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.**

*사장: 그래~*

-술집골목배경-

(갈아입고)쓰레기가 왜이리 많아? 청소하면 할 수록 끝이 없네

저기...

**네? 무슨일이세요?**

아까 그 여자다. 아까 맡았던 향은 여전하네. 근데 왜 갑자기 밖으로 나온 거지?

아깐 정말 죄송했어요! 정말 실수였어요. 이걸 어떻게 변상해야할지...

그녀는 아까 울었던 탓에 술이 조금 깬 것인지, 아까처럼 안절부절했던 모습과는 달리 좀 차분하고 진정된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나갔다.

그럼 그렇지... 괜찮다니까  
**됐어요. 어차피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, 제가 세탁해서 다시 입으면 돼요**.

아뇨.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는게 맞아요. 세탁비로 퉁 치는 것보다는 여기, 제 연락처드릴게요!

-지구하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-

그녀는 자기 연락처를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어서 줬다.

(조금 귀찮다는 듯)**저는 진짜 괜찮아요. 마저 마시러 가세요.**

왜 자꾸 괜찮다니까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네. 어차피 오늘 이후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연락처도 그냥 버리던가 해야겠다. 그런데 지금 몇 시지? (핸드폰 잠금을 풀며)

(버릴 걸 예상했다는 듯이) 설마 연락처 드린 걸 버린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? 안되겠네 핸드폰 이리 줘봐요.

난 안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인 지 힘이 생각보다 셌고,  
안간힘이 오가고 정신 차리니 이미 내 핸드폰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.

(자기 연락처를 남기고있다)

**저기 지금 뭐하시는...**

제 연락처 남겨드렸어요. 전 빚지고는 못살아요. 시간되실 때 연락주세요.

당황했지만 다시 가져가기엔 좀 지쳤다. 뭐야 저 여자는?

그녀는 자기 할 말만 다한 채로 다시 자리로 갔고, 나는 벙찐 채로 제대로 하고있는 지도 모르는

청소를 마저 하고 알바를 하러 다시 들어갔다.

[한서령] 아찔한 첫만남

**오늘은 많이 안 바쁘네… 앗**  
마법의 문장.... 말해버렸다**.**딸랑 -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. **.... 어서오세요! 몇 분이세요?**  
방금 스쳐 지나간 향이다. 근데 이 사람은...?

2명이요

허구한 날 매일 남자가 바뀌어서 오는 손님이다.  
맨날 내가 바쁠 때 와서 가까이서 볼 일이 없었는데, 남자가 많은게 인정될 정도로 고급지고 우아하게 / 이쁘게 생겼다.  
**오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 오셨네..  
....  
.......어?**뭐라고? (어이없는 표정)

아차, 생각으로 말한다는 게.  
오늘따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.

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.  
**아, 아니.. 이렇게 이쁘신 분이 왜 오늘은...! 아니 이게 아니라.**

진짜 대참사다. 쥐구멍에 숨고 싶다..  
하..한 번만 봐줄게.   
  
그녀는 이쁘다는 말에 화가 조금 풀린 것 같다.  
생각보다 칭찬에 약하구나?  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 
*친구 1: 빨리 가서 얘기하고 와 ㅋㅋ*  
야 그걸 어떻게 해? (조금 취한 표정)  
.

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.  
고급지면서도 진하지 않은 우아한 연한 장미 향이 나는 것을 보니 아까 그 여자인 것 같다.

후으.....야 알바.  
예..예?  
나랑 사귈래?

1. **????**

[유가현] 아찔한 첫만남